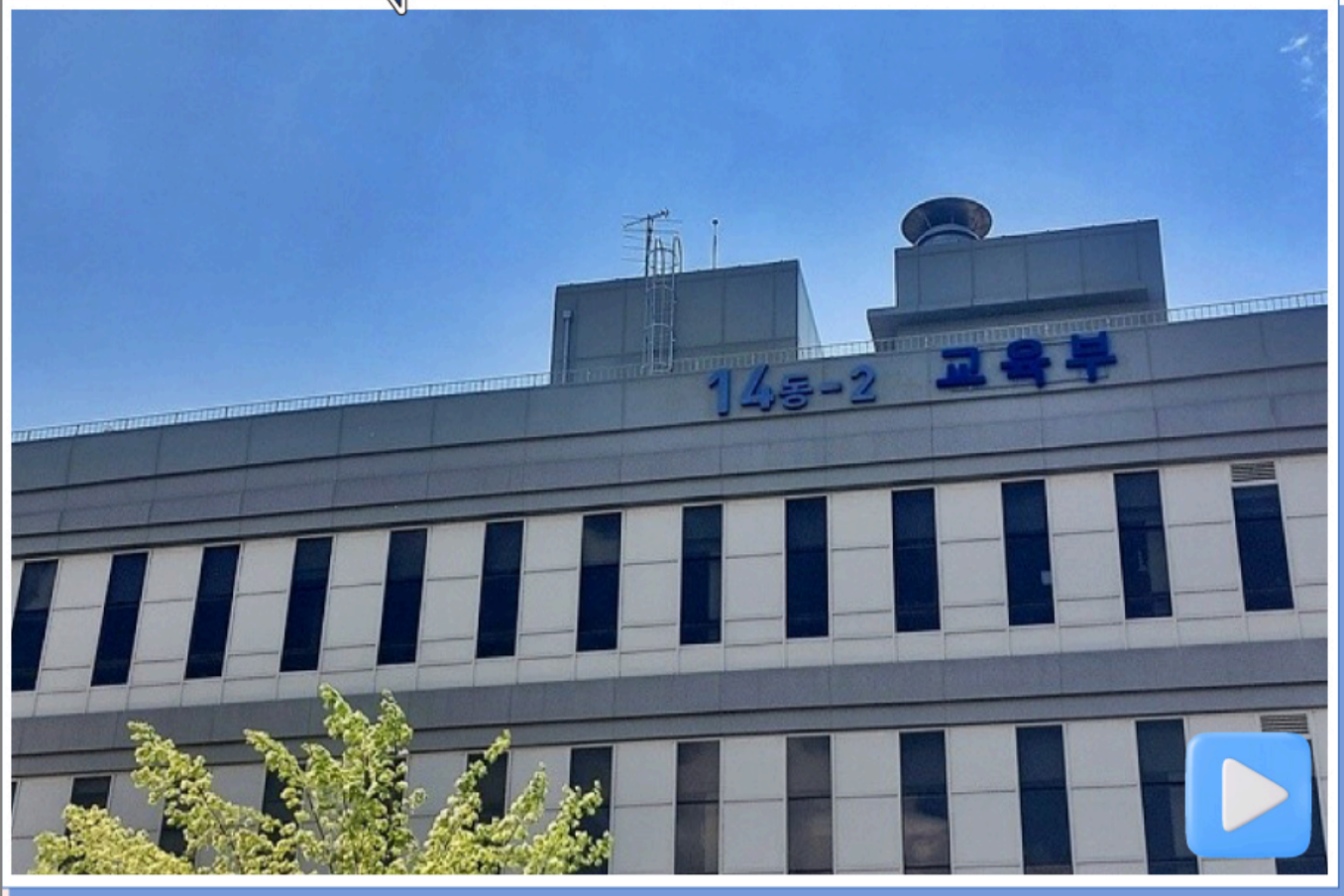




세종RISE센터
누리집 바로가기

SNL # 7

이달의 Pick



교육부, 라이즈(RISE)→'앵커'로 명칭 변경..학생 체감형 사업으로 개편

실효성 중심 '선택과 집중' 실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재구조화

교육부가 현행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를 '지역성장 인태양성체계(앵커)'로 재구조화하고, 지역에서 배우고 취업한 뒤 정주로 이어지는 인재양성 체계 구축에 나선다. 기존 시도 단위 지원 구조를 유지하되, 성과평가에 따른 예산 차등 지원과 초광역 협업을 강화해 정책 실효성을 높여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앵커는 17개 광역지자체가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맞춤형 사업을 통해 대학을 직접 육성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자 체계다.

#RISE #재구조화 #앵커 #인재양성

이달의 주요성과

'인공지능융합 캡스톤디자인 기업-학생 프로젝트 매칭 데이' 성료

지·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지역 정주형 인재 육성 박차



국립한밭대학교 세종RISE사업추진단은 세종공동 캠퍼스에서 인공지능융합 캡스톤디자인 기업-학생 프로젝트 매칭 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세종 지역 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학생들의 실무 중심 AI 융합 경험 제공을 통해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기업과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실제 기술 문제 해결과 AI 솔루션 개발을 공동 수행하며, 산학연계 기반의 취업 연계 및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이 기대된다.

2026년 세종RISE 세부시행계획 수립

정책기조 전환 및 성과 기반 사업구조 재편을 따른 2026년 세종RISE 세부시행계획 확정

세종RISE센터는 '2026년도 세종RISE 세부시행계획'을 확정하였다. 학생 성장과 지역 정착을 핵심으로 하는 인재양성 체계로의 전환을 핵심 기조로 하며, 교육부의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추진방안」 및 국정목표와의 정합성을 강화하였고, 학생 체감형 과제와 중부권 협력 기반의 초광역 연계과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편하였다. 또한 AX 기반 미래전략산업 특화 교육과정 운영, 대학-기업-혁신기관 협력을 통한 기업육성 생태계 조성 등 세종시 5+1 미래전략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였다. 세종RISE센터는 본 계획을 토대로 지역혁신 인재양성 성과를 본격 도출할 계획이다.



2026년 세종RISE 워킹그룹 운영 체계 고도화

성과 중심의 협업체계 본격 가동



세종RISE센터는 세종RISE 사업의 성과 창출 고도화와 내실화를 위해 2차년도 워킹그룹 운영계획을 수립하였다. 1차년도 협력 기반 구축을 토대로 2차년도에는 기존 점검 중심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성과 창출 중심으로 운영 체계를 고도화하고, 워킹그룹을 대학 간 협력과 정책 연계, 성과 환류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혁신 플랫폼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세종RISE 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성과 중심 과제 관리를 강화하고, 대학 간 실질적 협업 기반과 선순환 환류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미래교육원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평생교육원



한국영상대학교
직업교육거점센터

▶ 시민 참여 프로그램 확인 QR ◀

